

명품 여배우들의 안방극 귀환

송혜교, 어두운 복수극 연기 변신
전지현, 좀비액션·레이저로 열연
신민아, 톡톡 튀는 로맨스 기대감



연기자 송혜교·전지현·신민아(왼쪽부터)가 각기 매력을 내세워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로맨스와 액션, 복수극 등 장르도 다채롭다. 사진제공 | 하퍼스비자·뉴스-코스모폴리탄

‘여제’들이 귀환한다. 배우 송혜교, 전지현, 신민아가 잇따라 안방극장 나들이에 나선다.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오는 만큼 저마다 개성 있는 소재와 이야기를 선택하고 일찌감치 시청자 시선 끌기 준비에 한창이다. 앞서 다양한 작품을 히트작 대열에 올려놓으며 한류스타로서도 영향력을 과시해 온 이들의 복귀에 방송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송혜교 “연기 같증 제대로 푼다”
2019년 tvN ‘남자친구’ 이후 3년 만에 돌아오는 모습이 반갑다. 그는 다음 달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와 하반기 ‘더 글로리’를 잇따라 촬영하며 3년의 연기 공백을 제대로 지우겠다는 각오다. 최근 한 화보를 통해 “‘더 글로리’는 복수극이다. 어두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안 했던 장르이기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과 함께 안 해봤던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내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스타 작가’들이 함께 한다. 다양한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담아 올해 가을 방영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JTBC ‘미스티’로 독특한 개성을 드러낸 제인 작가가 대본을 맡는다.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뒤늦게 복수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더 글로리’로는 2016년 ‘태양의 후예’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와 재회한다. 사전제작해 내년 초 방송할 계획이다.

●전지현 “독특한 소재로 승부”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아신전’과 tvN ‘지리산’을 공개하기 위해 작년을 짝 채워 보내고 돌아온다. ‘킹덤: 아신전’에서는 북방 여진족 부락의 후계자로 등장해 시리즈의 보폭을 넓히는 의전을 이끈다. 지난해 가을 촬영을 시작한 ‘지리산’으로는 지리산 국립공원 레이저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전북 남원 등 지리산 자락 곳곳을 무대 삼아 늦어도 6월

이전에 촬영을 마치고 연말 방영할 계획이다.
각 드라마에서 좀비와 사투를 벌이고, 산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제대로 ‘고생’(?)하지만, 스크린에서 주로 펼쳐온 화려한 액션 연기를 안방극장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기대가 쏠린다. ‘킹덤: 아신전’의 연출자 김성훈 PD는 전지현에 대해 “말이 필요 없는 배우”라며 “첫 장면을 찍는 순간 전지현이 왜 20년간 사랑을 받았는지 바로 알았다”며 극찬했다.

●신민아 “러블리 매력은 내 무기”
올해 여름 방영할 tvN ‘갯마을 차차

차’ 촬영 준비에 한창이다. 원작인 2004년 영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에서 업정화한 연기가 치과 의사 역이다. 작은 시골에 정착한 개업의로, 깽쟁이 같지만 사랑스러운 매력을 숨겨둔 캐릭터다.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로 발산해온 톡톡 튀는 개성이 역할과 딱 들어맞는다는 기대감 어린 시선을 일찌감치 받고 있다.
특히 로맨스 장르는 2017년 tvN ‘내일 그대와’ 이후 4년 만이다. 원작에서 고 김주혁이 연기한 홍반장 역은 김선호가 맡는다. 원작과는 다른 설정도 추가해 색다른 재미도 노린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박찬욱 감독, 미국드라마 ‘동조자’ 연출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이 미국드라마를 연출한다. 박찬욱 감독은 베트남계 미국 작가 비엠티 응우옌의 장편소설 ‘동조자’를 드라마화한다. ‘동조자’는 베트남전 직후 이종첩자가 된 베트남인의 이야기로, 2016년 풀리처상과 에드거상을 수상했다. 박찬욱 감독은 ‘미나리’의 미국 배급사 A24와 손잡고 드라마를 만든다. 8일 비엠티 응우옌은 SNS를 통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동조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감독과 응우옌 작가는 2019년 10월 인연을 맺고 교류해왔다.

클릭비 출신 오종혁 12일 백년가약



오종혁

그룹 클릭비 출신 가수 오종혁이 12일 결혼한다. 오종혁은 이날 서울 강남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당초 지난해 5월 예식을 올리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오종혁은 2019년 MBC 예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여자친구가 있다”고 당당히 고백해 화제를 모았다. 이어 지난해 2월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그룹 에이트의 멤버 백찬도 6년 동안 교제해온 3세 연하의 대기업 직원과 26일 결혼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美 ‘엘렌쇼’ 무대 오른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처음으로 미국 TV 토크쇼에 출연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NBC의 토크프로그램 ‘엘렌 데제너러스 쇼’에서 무대를 펼친다. 이들은 이날 지난해 가을 선보인 세 번째 미니앨범 ‘미니소드1: 블루 아워’(minisode1: Blue Hour)의 수록곡 ‘날씨를 잃어버렸어’를 공연한다. ‘엘렌 데제너러스 쇼’는 미국 코미디언면서 작가 겸 배우인 엘렌 데제너러스가 진행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미니소드1: 블루 아워’ 등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영애, SBS 드라마 ‘모범택시’ 목소리 출연



이영애

연기자 이영애가 9일 첫 방송하는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에 목소리 출연한다. 역올한 이들의 사적 복수를 대항하는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에서 이영애는 의뢰인 역할을 목소리로 연기한다. 이영애는 극중 복수 대행 운수업체에게 전하는 의뢰 영상 속에 등장한다. 이영애가 드라마에 목소리만으로 출연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드라마 메인 예고편을 통해 연기한 모습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드라마 ‘모범택시’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삼아 이제훈과 표예진 등이 주연한다.

음악콘텐츠협회,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음반기획사와 유통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무선언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의 입영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영 대상이 되는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관련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사랑의 불시착 두번째 커플? 서지혜·김정현 “열애설 사실 아냐”

“친한 누나·동생 사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한 현빈·손예진에 이어 또 한 쌍의 커플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 극중 상대역으로 호흡을 맞춘 서지혜(37)와 김정현(31)이 하루에 두 차례나 제기된 열애설에 대해 8일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날 두 사람이 지난해 2월 드라마 종영 이후 1년여 정도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서지혜의 소속사 문화창고 측과 김정현의 오앤엔터테인먼트 측은 “작품을 함께해 친해진 하지만 연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현은 서지혜가 주연한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 특별출연하기도 했다.



서지혜 김정현

하지만 이들의 부인에도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1년간 비밀 연애를 해왔다”는 보도가 또 다시 나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10여분 거리의 아파

트에 사는 두 사람이 각자의 집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또 서울 근교에서 자주 만나왔다는 사진도 받았다.
이에 대해 문화창고 측은 “두 사람이 워낙 친한 누나·동생 사이이다. 특히 가까이 살고 있어 편하게 자주 만난다”고 말했다. 열애설도 김정현이 현재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문화창고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개인적인 상담을 위해 만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김정현과 전속계약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한류스타들, OTT로

차승원·김수현 ‘그날 밤’ 쿠팡 유희 이민호 ‘파친코’ 애플TV 방영 확정

차승원·이선균·김수현·이민호...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누비던 한류스타들이 이제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로 향한다. 특히 이제 막 문을 연 신규 OTT가 자체 투자·제작하는 오리지널 드라마를 점에서 더욱 눈에 띈다.
차승원과 김수현이 최근 촬영을 시작한 ‘그날 밤’은 이케머스 회사 쿠팡이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플레이의 편성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영국 BBC가 2008년 방영한 ‘크리미널 마인드’를 원작 삼아 형사사법제도를 조명하는 드라마에서 차승원은 변호사, 김수현은 살인용의자 역할을 맡는다.

이선균과 이민호가 각각 주연하는 드라마 ‘닥터 브레인’과 ‘파친코’는 올해 하반기 국내에 상륙하는 애플TV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다. ‘파친코’에는 최근 미국배우 조합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도 출연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국내 서비스를 계획 중인 디즈니플러스에서는 드라마 ‘너와 나의 경합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가수 강다니엘이 주연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기존 방송사와 OTT에서 동시 공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들 드라마는 해당 OTT에서만 독점 공개할 방침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8일 “비교적 심의에서 자유로워 색다른 이미지를 시도하기 좋고, 해외 시청자와 접점이 높다는 점 때문에 배우들이 이전보다 OTT 오리지널 드라마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최근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방송사들의 채널 경쟁력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OTT들이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통해 이른바 ‘간판스타’들을 캐스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배우들의 거부감이 많아 낮아졌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걸그룹 니쥬, 日 프로야구단과 5G 콘텐츠 선배

소프트뱅크와 AR·VR 콘텐츠 전시 JYP·소니 합작 그룹...영향력 증명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박진영이 이끄는 한국의 JYP엔터테인먼트와 일본 소니뮤직이 합작해 론칭한 그룹 니쥬(NiziU)가 일본 프로야구 구단과 손잡았다. 이들은 일본 프로야구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협업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니쥬는 최근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모회사이자 일본 최대 통신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문을 연 5G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오프라인 공간에 들어섰다. 이들은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운영하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 ‘BOSS E·ZO FUKUOKA’에서 확장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다.

‘NiziU LAB(니쥬 랩)’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전시는 5G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니쥬 멤버들의 의상을 비롯해 이들의 영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7일 내놓은 신곡 ‘Poppin’ Shakin’(팝핀 셰이킹)의 뮤직비디오 등과 멤버들이 출연한 CF 등도 공개하고 있다. ‘Poppin’ Shakin’은 소프트뱅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음악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는 니쥬가 현재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이들은 “‘Poppin’ Shakin’와 함께 ‘Take a picture’(테이크 어 픽처)’를 선보인 뒤 오리콘의 최신 일간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 또 현지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비롯해 다양한 음원차트를 장악하며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테이크 어 픽처’의 일본 코카콜라 광고 삽입을 비롯해 최근 내놓은 싱글의 모든 수록곡이 다양한 CF의 배경음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니쥬

앞서 지난해 6월 첫 미니앨범 ‘Make you happy’(메이크 유 해피)로 데뷔한 니쥬는 12월 싱글 ‘Step and a step’(스텝 앤드 어 스텝)으로 오리콘 차트를 석권했다. 니쥬는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지난해 연말 현지 최대 음악프로그램인 NHK의 ‘홍백가합전’에 출연했다. 이어 올해 3월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베스트5 뉴 아티스트’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